

# 최근 2년간 전시대여 자료로 살펴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품

송지형  
(정보관리과 고문헌자료실)

## 목차

- |                      |                   |
|----------------------|-------------------|
| 1. 들어가며              | 5) 일제강점기 조선 연구 자료 |
| 2. 최근 2년간 대여 현황      | 6) 기타 한국 관련 사료    |
| 3. 전시대여 자료 소개        | 7) 불교 관련 사료       |
| 1) 국내 한글 간행 창간호 잡지   | 8) 일본과 중국의 고서     |
| 2) 서양인이 기록한 한국 관련 문헌 | 9) 탁본             |
| 3) 서울대학교 전신학교 관련 자료  | 10) 기타 도서         |
| 4) 개화기 교과서           | 4. 나오며            |

## 1. 들어가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장서를 승계하였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은 일제하의 제국대학운동을 위한 기반시설로 설립”(정근식 2010) 되었기에 식민지 아카이브라는 측면에서 서울대학교 소장 자료의 학술·연구적 가치가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대학교는 문화재급 고문헌을 보존·관리하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교내에 별도로 존재하고, 중앙도서관과 규장각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고서와 고문서는 중앙도서관에서 규장각으로 장기 대여되었기에,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문화·예술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현장 사서들 또한 역사적인 맥락에서 중앙도서관 자료의 중요성은 알겠으나, 대

외적으로 중앙도서관이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대표하여 제시할만한 자료가 없어 난감할 때가 많았다.

도서관은 특성상 전시회를 개최할 기회가 많지는 않으나, 박물관 등에 자료를 대여하여 전시에 협력할 일은 많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에서 전시에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가치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은 2018~2019년 최근 2년 동안 총 20건의 전시에 68점의 자료를 출품하였다(〈표 1〉 참조). 이번 보고서는 고문헌자료실에서 지난 2년간 전시 대여한 목록을 대상으로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최근 2년간 대여 현황

고문헌자료실은 지난 2년간 교내(서울대학교박물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35점의 자료를 출품하였던 경우를 제외하면, 13개 기관, 19건의 전시에 33점의 자료를 출품하여 전시당 평균 1.74개의 자료가 대여되었다. 13개 기관 중 국립한글박물관에서 개최한 3건의 전시를 지원하였고, 대한민국의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무형유산원 등에도 2건의 전시를 지원하였다. 13개 기관 가운데 국립한글박물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국립무형유산원 등 문화재청 소속기관이 6개로 11개의 전시에 출품하였고, 서울역사박물관 등 지자체 소속 박물관도 4개 기관, 5개 전시에 출품하였다. 그 외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국립여성사전시관에 전시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으로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불교중앙박물관, 출판계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 등에도 자료를 대여하였다.

전시 주제는 한국과 한국에 속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벗어난 주제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으나, 〈아시아의 타투〉(국립무형유산원)나 〈금지된 책, 대나무 숲의 유명들〉(대한출판문화협회)처럼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전시도 눈에 띈다.

교내에서 개최한 서울대학교 소장 탁본 전시인 〈불후의 기록〉을 제외하면 출품 자료는 모두 도서이다. 도서는 대부분 한글 또는 한자로 쓰인 동양서이나, 영어 도서가 2회, 헝가리어와 러시아어 도서도 1회 출품되었다.

〈표 1〉 2018~2019년 전시대여 현황

대여기관	전시명	대여기간	대여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 스포츠, 땀으로 쓴 역사	2017.11.17.~ 2018.03.12.	純宗皇帝實錄 券之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의 타투	2017.11.20.~ 2018.03.26.	水滸傳英雄彩色畫集
국립현대미술관	신여성 도착하다	2017.11.29.~ 2018.05.04.	女聲(창간호) 女人(창간호)
검단선사박물관	그래서, 검단	2018.07.12.~ 2018.10.23.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韓國水産誌
국립한글박물관	나는 몸이로소이다	2018.07.13.~ 2018.10.17.	醫林改錯 博物新編
국립여성사전시관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	2018.07.16.~ 2019.02.01.(연장)	자선부인회잡지(창간호)
국립한글박물관	사전의 재발견	2018.09.14.~ 2018.10.17.	Опыт русско-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국립무형유산원	한국과 중국의 무형유산, 비단	2018.10.31.~ 2019.01.10.	搜神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2019.01.30.~ 2019.05.31	雲山金鑛報告書 The korean situation
양주시립회암사지 박물관	회암사 동자의 어떤 하루	2019.05.14.~ 2019.08.09.	百丈清規證義記 承陽大師聖敎全集 勅修百丈清規
대한출판문화협회	금지된 책, 대나무 숲의 유령들	2019.06.17.~ 2019.06.27.	大杉榮全集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研究 憲法撮要
서울역사박물관	북촌, 열한집의 오래된 기억	2019.07.11.~ 2019.10.08.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1935) 京城醫學專門學校一覽(1936) 實生活(창간호)
불교중앙박물관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모악산 금산사	2019.08.09.~ 2019.12.05.	宋高僧傳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2019.09.03.~ 2019.11.28.	서례슈지 西禮須知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구파발 산대탈	2019.09.03.~ 2019.12.20.	山臺都監劇脚本
서울역사박물관	카메라를 든 헝가리 의사	2019.09.24.~ 2019.12.02.	Két év keletázsiában (2책)
서울대학교박물관	불후의 기록	2019.09.25.~ 2019.12.18.	大東金石目 大東金石書 大東金石書(등사본) 大東金石書解題 寂然國師碑銘拓本 탁본 15종 30매
국립한글박물관	한글의 큰 스승	2019.09.26.~ 2019.12.18.	The korean repository(창간호)

대여기관	전시명	대여기간	대여자료
국립현대미술관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2019.10.02.~ 2020.02.14.	學生界(창간호) 白潮(창간호)
국립무형유산원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2019.11.25.~ 2020.02.27.	朝鮮民俗(창간호) (假面舞踊)鳳山탈脚本

### 3. 전시대여 자료 소개

#### 1) 국내 한글 간행 창간호 잡지

국내에서 한글로 간행된 창간호 잡지는 5건의 전시에 7책이 출품되었다.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는 ‘조선문창간호잡지(朝鮮文創刊號雜誌)’라는 명칭 아래 의도적으로 한글 창간호 잡지들을 수집하였는데, 그 덕분에 중앙도서관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창간호 잡지 130여 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립여성사박물관의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여성 도착하다> 전시에는 여성 잡지의 창간호가 출품되었다. 먼저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는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북촌의 여성들이 발표한 여권통문선언 1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전시인데, 대한제국 시기인 1908년 8월 발행한 『자선부인회잡지』 창간호가 출품되었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당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관심과 사고의 분출구”로 단체와 단체에서 발행한 잡지에 주목하고, 이보다 먼저 발간된 여성 잡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여성들이 창간하고 목소리를 내었던 잡지”로 『자선부인회잡지』를 소개하였다(국립여성사전시관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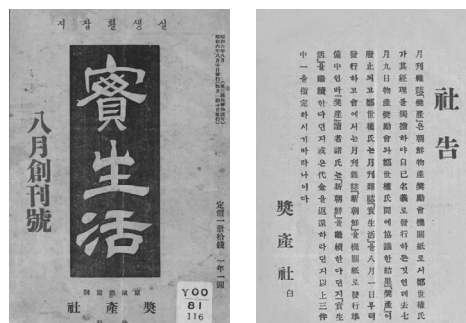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의 <신여성 도착하다>는 20세기 초 우리나라의 예술과 문화에 나타난 다양한 신여성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전시로, 1932년 6월 발행한 『여인(女人)』의 창간호와, 1934년 4월 발행한 『여성(女聲)』 창간호가 출품되었다. 이 전시 또한 국립여성사박물관 전시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교육과 계몽” 활동의 일환으로 당시 여성 잡지를 소개하였다(국립현대미술관 2017). 『여인』은 사회주의 성향의 비판사(批判社)에서 발행한 여성 잡지라는 점에서, 『여성』은 당시 카페나 바에 종사하던 ‘여급(女給)’의 목소리를 신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잡지이다.





〈그림 1〉『자선부인회잡지』, 『여인』, 『여성』 창간호 표지

서울역사박물관은 2019년 7월 <북촌,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을 통해 본 북촌 백년사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이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18년 서울생활문화 자료조사 사업으로 북촌 지역에 대한 구술조사를 실시하고 『북촌 11가의 오래된 기억』이라는 보고서를 간행하였는데,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이 전시는 1부는 북촌의 형성과 변화에 대하여, 2부는 북촌 사람들의 주거와 생활문화를 소개하였는데, 중앙도서관은 1931년 8월 발행된 『실생활』 창간호를 출품하였다. 조선물산장려회 기관지인 『장산(獎産)』의 발행 비용은 정세권(鄭世權)이 전담하였는데, 『실생활』은 『장산』 폐간 이후 조선물산장려회와 별도로 정세권이 계속 발행하던 잡지이다. 정세권은 조선인 건설업자로 낙원동에 건양사(建陽社)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1920년대 북촌에 한옥마을 건설을 주도하였다(김경민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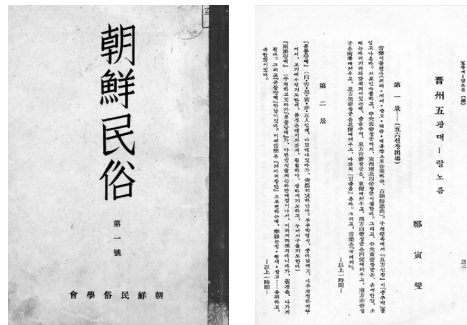
〈그림 2〉『실생활』 창간호 표지와 사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개관 5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10월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전을 개최하면서, 1900-1950년은 덕수궁에서, 1950-2019년은 과천에서, 2019년은 서울에서 분산 개최하였다. 이중 1부에 해당하는 20세기 전반기를 다룬 덕수궁 전은 식민 지배에서 해방에 이르는 동안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요구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주제로 “의로운 이들의 기록”, “예술과 계몽”, “민중의 소리”, “조선의 마음”이라는 네 개의 섹션으로 전시를 구성하였고, “일제강점기 계몽 운동의 차원에서 일어난 예술가들의 역할과 활동에 주목”한 “예술과 계몽”은 당시 문예운동의 결과물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잡지들을 전시하였다(국립현대미술관 2019). 중앙도서관은 1920년대에 발행한 『백조(白潮)』와 『학생계(學生界)』 창간호를 출판하였는데, 『백조』 창간호의 표지는 안석주(安碩柱)가, 『학생계』 창간호 표지는 김찬영(金瓚永)이 디자인하였다. 『백조』의 동인인 안석주가 주로 국내에서 활동한 반면, 김찬영은 동경 유학파로 1920년대 다른 동인지인 『폐허(廢墟)』에서 활동하였다는 점도 서로 비교해 볼만하다.



〈그림 3〉『백조』와 『학생계』 창간호 표지

끝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이 2019년 12월에 개최한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라는 특별전에는 조선민속학회에서 1933년 발행한 『조선민속』 1호를 출판하였다. 『조선민속』은 손진태(孫晋泰), 송석하(宋錫夏), 정인섭(鄭寅燮) 등이 발기한 조선민속학회에서 간행한 학회지로, 1933년과 1934년 1, 2호를 간행하고, 1940년 3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였다. 『조선민속』은 식민지 내에서 민속학을 주제로 지식인 집단의 활동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전경수 2013). 전시에는 창간호에 실린 정인섭이 채록한 진주오광대 탈놀음이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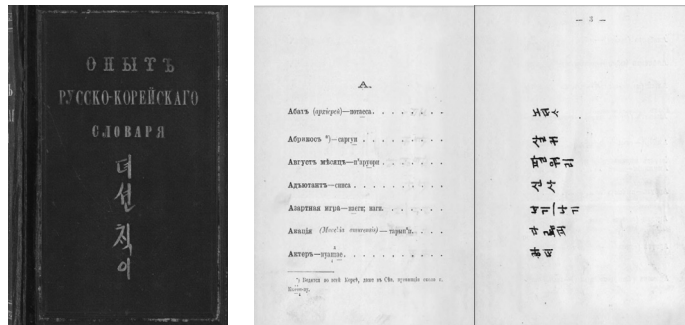


〈그림 4〉『조선민속』 제1호 표지와 제1호에 실린 정인섭의 글

## 2) 서양인이 기록한 한국 관련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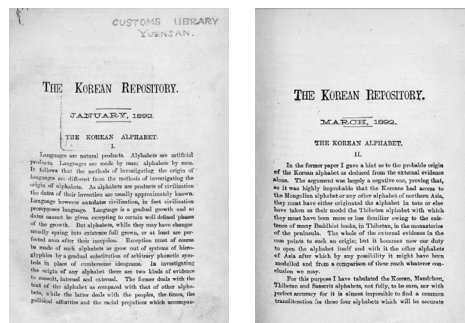
서양인이 자국어로 기록한 한국 관련 문헌은 4건의 전시에 5책이 소개되었다.

먼저 *Опыт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는 겉표지에 ‘더선[초-]이(조선책)’라는 한글이 함께 적혀 있는 노한사전(露韓辭典)이다. 1874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발행된 최초의 노한사전으로, 1880년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불증언』보다도 먼저 편찬되었다. 책의 저자는 뿌쉴로(М. Пуцилло)로 연해주 지역에서 근무하던 러시아 관리이다. 앞서 노한사전이라고 하였지만 사전이라기보다는 대역어휘집(對譯語彙集)에 가까우며, 3,369개의 러시아 단어에 대한 한국어 뜻풀이와 발음이 표기되어 있는데, 뿌쉴로가 직접 옮겨 적은 한국어를 그대로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연해주 이주민을 대상으로 채집한 어휘다보니 함경도 방언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한다(홍기순 2011). 이 책은 국립한글박물관이 2018년 9월 <사전의 재발견>이라는 기획특별전을 개최하는데 “외국인이 만든 조선말 사전”으로 “서양인의 조선말 학습”을 위한 사례로 소개되었다(국립한글박물관 2018). *Опытъ русско-корейскаго словаря*은 지난 2년간 전시대여 자료 중 유일하게 도서관 귀중본 지정 도서이기도 하다.



〈그림 5〉 Опыть русско-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표지와 1-2면

*The Korean repository*는 1892년 1월 감리교 선교사인 올링거(Franklin Ohlinger) 부부가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영문 잡지이다. *The Korean repository*는 올링거가 한국을 떠나면서 1893년부터 1894년까지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헐버트(Homer Hulbert)가 내한하면서 올링거의 후임으로 출판을 재개하였다. 한때 3,000부 이상 팔리던 잡지였으나 1889년 폐간하였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풍습, 종교, 언어 등을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눈으로 관찰한 한국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강혜정 2017).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2019년 9월 〈한글의 큰 스승〉이라는 주제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하였는데, 헐버트를 “한글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가 저술한 책과 글을 전시하였다(국립한글박물관 2019). 중앙도서관에서 출판한 *The Korean repository* 창간호와 1892년 3월호에는 헐버트가 한글을 소개한 “The Korean alphabet”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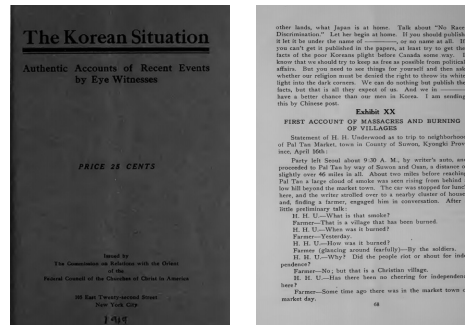
〈그림 6〉 *The Korean repository* 1892년 1월호와 3월호에 실린 “The Korean alphabet”

서울역사박물관은 2019년 10월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부다페스트의 홉 페렌츠 동아시아박물관(Ferenc Hopp Museum of Asiatic Arts)이 소장하고 있던 헝가리 의사 보조끼 데조(Dezső Bozóky)가 1908년 한국을 여행하며 찍은 사진들을 <카메라를 든 헝가리 의사 보조끼 데조>라는 주제로 전시하였다. 마침 중앙도서관은 보조끼 데조가 동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1911년 너지바러드(Nagyvárad, 현재 루마니아의 오라데아)에서 출간한 *Két év keletáziában*(동아시아에서 2년)을 소장하고 있어 전시에 협조하였다. *Két év keletáziában*은 모두 두 권으로, 1권은 중국과 한국 여행기, 2권은 일본 여행기이다. 보조끼 데조는 제물포, 서울, 부산 등을 여행하였는데, 한국 관련 분량이 1권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나, 한국 관련 도판이 33매가 실려 있다.



〈그림 7〉 *Két év keletáziában* 1권과 2권 표지, 1권의 한국인 사진 (©ELBIDA projekt)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대한독립 그날이오면>이라는 특별전이 열렸다. 특별전은 3·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해외에 남은 독립운동가의 자취라는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열렸는데, 특히 3·1운동을 주제로 구성한 “1919년을 가슴에 품다”에서는 3·1운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던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행적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로 구성하였다. 중앙도서관이 출판한 *The Korean situation*은 미국기독교연합평의회(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의 동양관계위원회(The Commis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에서 1919년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취합하여 편집한 소책자로 당시 일본 통치의 잔혹함을 세계에 알린 자료이다. 전시에서는 제암리 학살사건의 생존자인 전동례를 소개하면서 당시 사건에 대한 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 선교사의 진술을 기술한 부분이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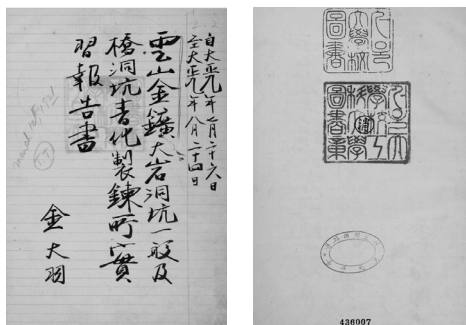
〈그림 8〉 *The Korean situation* 표지와 제암리 학살사건을 기술한 면

### 3) 서울대학교 전신학교 관련 자료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의 전신학교 관련 자료도 종종 대여 요청이 접수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2건의 전시에 3책을 출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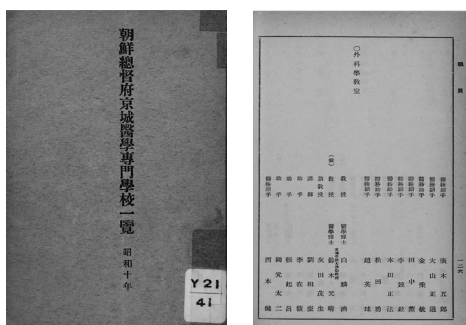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대한독립 그날이오면〉 전에 중앙도서관 자료가 한 점 더 전시되었는데, 김대우(金大羽)가 경성공업전문학교 재학시절 작성한 평안북도 운산금광 보고서이다. 김대우는 3·1운동에 참여하였으나 이후 1921년 경성공업전문학교 광산과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을 거쳐 조선총독부 관리가 되었으며, 해방 당시에는 경상북도지사를 역임하였다. 2009년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포함되었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9). 김대우가 졸업한 경성공업전문학교는 이후 경성고등공업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 광산과가 분리되면서 경성광산전문학교로 옮겨갔으나, 1946년에는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경성대학 이공학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가 모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으로 통합되었다.





〈그림 9〉 김대우 광산보고서 표지와 장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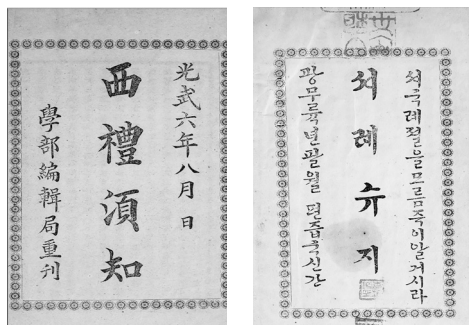
앞서 〈북촌, 열한 집의 오래된 기억〉 전에는 북촌에 정착한 11개 집안을 소개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백인제(白麟濟) 가(家)이다. 백인제는 1921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수석 졸업하였으나, 3·1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바로 의사면허를 받지 못하고, 조선총독 부의원 2년 근무를 조건으로 1923년에야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다. 1928년에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바로 경성의학전문학교 외과주임교수로 임용되었다. 이후 교수를 사임하고 1941년 백인제 외과의원(오늘날 백병원)을 개업하였다. 백인제는 한국전쟁 중에 납북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2018). 중앙도서관은 백인제가 교수로 재직하던 1935년과 1936년의 『조선총독부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을 출판하였다. 경성의학전문학교는 1946년 경성대학 의학부와 통합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었다.



〈그림 10〉 1935년 『조선총독부경성의학전문학교일람』 표지와 직원 명단

#### 4) 개화기 교과서

『서례수지(西禮須知)』는 중국학자인 존 프라이어(John Fryer, 중국어는 傅蘭雅)가 서양의 예절을 소개한 책으로 1886년 한역(漢譯)하여 상해에서 간행되었다.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集玉齋) 장서인이 찍혀있는 한역본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중이다. 서양인과의 교류가 늘어남에 대한제국도 『서례수지』를 들여와 학부(學部)에서 다시 간행하였는데, 중앙도서관은 1902년 학부에서 중간(重刊)한 『서례수지』와 같은 해 한글로 번역한 『서례슈지』 2종을 소장하고 있다. 『서례슈지』 한글본은 표제면에 “서국례절을 모름죽이 알거시라”라고 제목을 풀어써 두었다. 중앙도서관 대여 도서관 대부분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전신학교 소장본인 반면 『서례슈지』는 이상백(李相佰)의 기증도서인 상백문고본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에서는 2019년 9월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전을 개최하면서, “서구식 예법을 받아들여 근대국가로 편입하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서례수지』를 소개하였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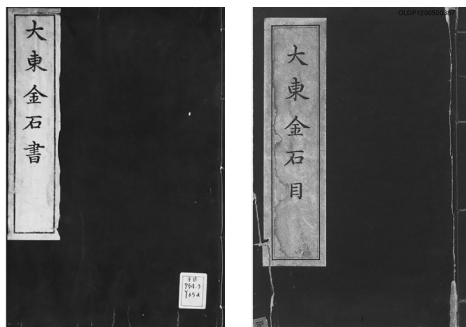
〈그림 11〉『서례수지』 한문본과 한글본 표지

#### 5) 일제강점기 조선 연구 자료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는 조선 중기 이우(李侯)가 우리나라에 산재되어 있던 탁본을 모아 편찬하였다고 알려진 탁본첩으로 일본 덴리(天理)대학교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던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대동금석서』를 입수하였고, 경성제국대학에서 1932년 영인하였다. 류는 『대동금석서』를 영인하면서, 『대동금석서』에 실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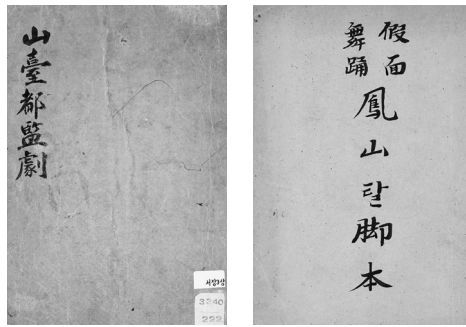
목록을 교정하여 『대동금석목(大東金石目)』을 간행하였고, 『대동금석서해제』도 함께 작성하였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19). 이는 모두 서울대학교박물관이 〈불후의 기록〉전을 개최하면서 후술할 탁본들과 함께 출품한 자료이다. 이희승(李熙昇)의 기증도서인 일석문고에는 『대동금석서』의 목록을 등사한 책이 있어 함께 출품하였다.



〈그림 12〉『대동금석서』와 『대동금석목』 표지 (©국회도서관)

산대도감극은 탈을 쓰는 우리나라 가면극의 하나로, 조선 초 산대극을 관장하던 ‘산대도감(山臺都監)’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인조(仁祖)대 궁중의식으로 ‘나례(儺禮)’가 축소되면서 산대극은 지방에서 주로 전승되는데, 그 중 1930년 경기도 양주 별산대놀이를 채록한 것이 『산대도감극(각본)』이다. 당시 채록을 주도한 것은 경성제국대학 교수이던 다카하시 토오루(高橋亨)이며, 연희자 조종순(趙鍾洵)의 구술을 토오루의 제자인 김지연(金志淵)이 필사하였다. 중앙도서관 소장 『산대도감극(각본)』은 필사한 것을 다시 등사(謄寫)한 책으로 2019년 9월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기획특별전 〈구과발 산대탈〉에 출품되었다. 구과발(녹번) 지역이 조선시대 전문 연희패의 집단 거주지였고, 이후 양주 등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은평역사한옥박물관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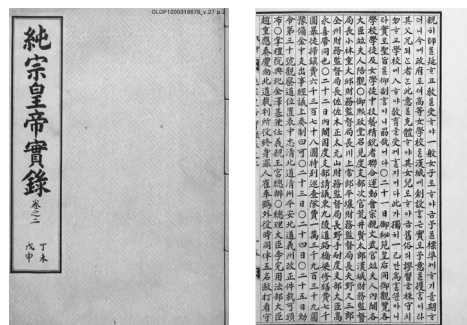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탈놀이, 신명에 실어 시름을 날리다〉 전에는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봉산탈각본』 등사본도 같이 출품하였다. 『봉산탈각본』은 조선총독관방 문서과에 근무하던 오청(吳晴)이 1936년 봉산탈 관련자들의 구술을 채록한 자료인데, 손진태가 수집한 민속 자료 가운데 하나로 남창문고에 속해 있다.



〈그림 13〉『산대도감극』과 『봉산탈각본』 표지

## 6) 기타 한국 관련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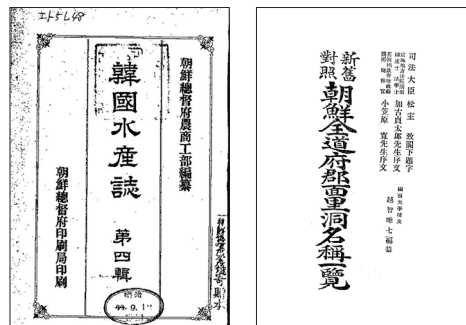
2017년 12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를 기념하여 〈한국스포츠, 땀으로 쓴 역사〉전을 개최하였다. 전시에서는 “근대스포츠의 시작”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의 다양한 체육활동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하였는데, 『순종황제실록』(이하 순종실록) 1908년 5월 21일자 기사에 “비원에 나가 운동회를 구경하다”는 기사가 있어 함께 전시하였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순종실록은 목록 1책과 부록 3책을 포함하여 전체 8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의 사무를 담당하던 이왕직(李王職)에서 편찬을 주도하여 같이 편찬한 고종실록과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실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림 14〉『순종황제실록』 권2의 표지와 운동회 관련 기사 (©국회도서관)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는 한반도 연해의 지리적 환경, 수산물의 종류, 어로 상황 등을 조사하여, 일본 어업인들의 조선 진출을 염두에 두고 편찬한 책이다(이근우 2011). 1908년부터 1911년까지 전체 4권으로 간행되었으며, 1, 2권의 편찬주체는 대한제국 농상공부 수산국이나, 3, 4권은 조선총독부 농상공부에서 편찬하였다.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은 2018년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그래서, 검단>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인천시 검단 지역에 해당하는 역사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하였는데, 염전과 포구가 있던 왕길동에 관한 사료로 1911년 간행한 『한국수산지』 4집이 소개되었다.

한편, 1917년에 간행된 『(신구대조)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은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따른 지방행정구역 개편 이후 한반도내 지명 변화를 대조한 책으로, 검단 지역을 개괄하는 자료로 전시되었다(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2018).



〈그림 15〉 『한국수산지』 제4집 표지(©国立国会図書館) /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 표지(©국회도서관)

## 7) 불교 관련 사료

중앙도서관은 1992년 규장각(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당시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과 중국의 고서들을 모두 규장각에 대여하여 현재 남아있는 고서가 많지 않으나, 일본에서 출판된 고서들은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불교 관련 전시에서 중앙도서관이 대여한 자료들은 모두 일본에서 간행된 자료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불교중앙박물관에서는 2019년 9월 <도솔전에서 빛을 밝히다 - 모악산 금산사>전을 개최하면서, 『송고승전(宋高僧傳)』을 전시하였다. 『송고승전』은 송(宋)의 찬녕(贊寧)이 저술하였다고 하는 당(唐), 오대(五代), 송초(宋初)의 고승 664명의 행

적을 기술한 책이다. 원효 등 우리나라 고승의 전기도 포함되어 있어 불교사 연구에 자주 인용되는 자료이다. 김제의 금산사 창건주로 알려진 진표(眞表)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송고승전』 권 14에 실린, 「당백제국금산사진표전(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이라 한다(불교중앙박물관 2019).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송고승전』은 일본에서 간행된 경안(慶安) 4(1651)년 판본으로, 30권 12책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16〉『송고승전』 진표 관련 기록(©불교중앙박물관)

2019년 5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의 〈절집의 어떤 하루〉전은 회암사를 배경으로 절집의 일상을 엿볼 수 자료들로 전시를 구성하였다. 『백장청규(百丈淸規)』는 원(元)대에 편집한 선종(禪宗)의 사찰규범 지침서이다.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일본판 『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의 영인본과 1911년 간행한 『대일본속장경(大日本續藏經)』 중 「백장청규증의기(百丈淸規證義記)」를 대여하였다. 『대일본속장경』은 일본이 러일전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1905년부터 1912년까지 장경서원(藏經書院)에서 기존의 『만자장경(卍字藏經)』을 보완하여 간행하였다(윤기엽 2016). 전시에는 1909년 일본 에이헤이지(永平寺)에서 간행한 『조요대사성교전집(承陽大師聖敎全集)』도 함께 출품하였다. 조요대사는 법명이 도젠(道元)으로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선종 승려이며, 일본 조동종(曹洞宗)의 개조(開祖)이다.



〈그림 17〉『척수백장청규』, 『백장청규증의기』, 『조요대사성교전집』,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 8) 일본과 중국의 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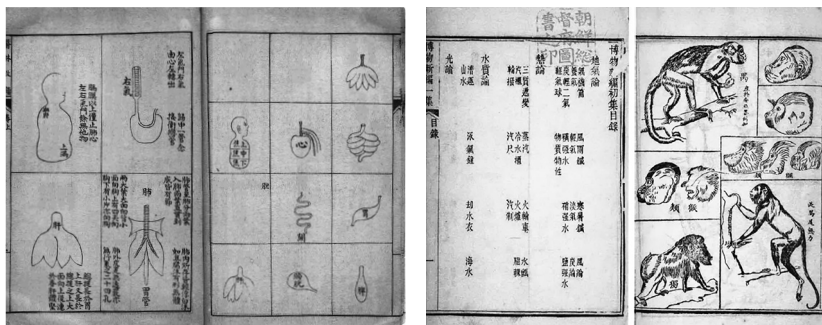
『수호전영웅채색화집(水滸傳英雄彩色画集)』은 『수호전』 등장인물의 채색 도판이 실려 있는 교카슈(狂歌集)로, 1829년 일본에서 발행되었다. 교카는 일본 고유 형식의 시인 와카(和歌)의 일종으로, 에도 시대 교카시(狂歌師)인 가료우엔 우메마로(臥竜園梅磨)가 편찬하였다. 교카슈에 실린 도판은 일본의 회화 양식은 우키요에(浮世絵)의 일종이다. 2017년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아시아의 타투> 전에는 『수호전』이 당시 일본의 타투 유행을 선도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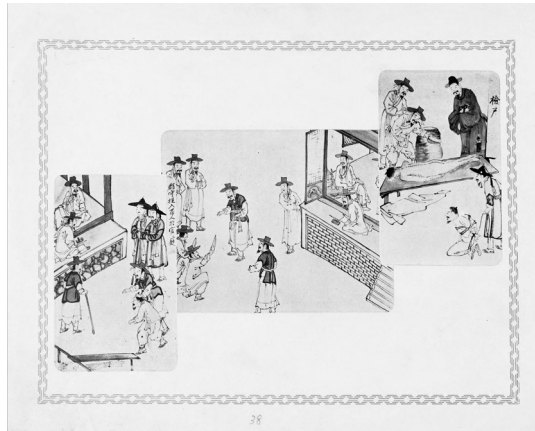
〈그림 18〉『수호전영웅채색화집』도판

2018년 7월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열린 <나는 몸이로소이다> 기획특별전은 1908년 제증원에서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 입수를 계기로 개화기 한글 해부학을 주제로 기획하였다. 우선 전시에서는 개화기에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발간되기까지 동양과 서양의 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였는데, 중앙도서관은 중국에서 19세기에 간행한 해부학서인 『의림개작(醫林改錯)』과 1855년 영국의 의사인 벤자민 홉슨(Benjamin Hobson)이 쓴 자연과학 교과서 『박물신편(博物新編)』 등 중국서 2책을 출품하였다. 이 중, 『의림개작』은 1830년에 간행한 책으로 “중국의 근대해부학을 개척한 저작으로 평가”받는데(신규환 2012), 출품한 책은 이를 후대에 다시 펴낸 석인판(石印版) 『정교의림개작(精校醫林改錯)』으로 방중현(方鍾鉉) 기증 일사문고본이다.



〈그림 19〉『의림개작』과 『박물신편』(©국립한글박물관)

한편, 전시에는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사법제도연혁도보(司法制度沿革圖譜)』에 실린 도판 이미지 한 컷도 함께 출품하였다. 『사법제도연혁도보』는 조선시대 재판 과정이나 형 집행 장면 등을 묘사한 그림이 다수 실려 있어 중앙도서관 자료 중 가장 자주 출품을 요구받는 책이다.



〈그림 20〉『사법제도연혁도보』 도판

『수신기(搜神記)』는 중국 동진 시대 간보(干寶)가 편찬한 설화집이다. 중국 양잠의 기원을 알 수 있는 마두낭(馬頭娘) 전설이 실려 있다 하여 2018년 11월 국립무형유산원 국외교류전시인 〈비단〉전에 출품하였다(국립무형유산원 2018). 중앙도서관이 출판한 『수신기』는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새로 표점(標點)하여 간행한 판본으로 고서로 간주하긴 곤란하나, 국내에 마땅한 판본이 없어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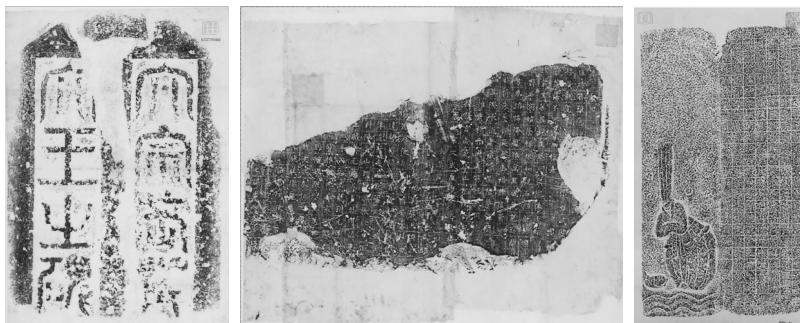
## 9) 탁본

탁본(拓本)은 어딘가에 새겨진 글씨를 종이에 떠낸 것을 말하며, 대체로 낱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간혹 첩(帖)이나 선장(線裝) 형태로 책으로 묶여있기도 하다. 탁본은 도서관에 어울리는 자료는 아니나, 중앙도서관은 상당수의 탁본을 소장하고 있다.

우선, 중앙도서관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수집한 탁본을 넘겨받았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수집한 탁본은 대부분 ‘금석학(金石學)’으로 주제가 분류되어 있으나, 간혹 묘비명의 경우 ‘전기’(傳記)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다른 고서와 마찬가지로 연도가 오래된 탁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장기대출 중이다.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낱장 형태의 탁본 173종을 소장하고 있으며(서울대학교박물관 2019, 327-328; 『한당전례구탁본(漢唐篆隸舊拓本)』은 책자 형태이며,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는 경성제국대학 입수 탁본이 아님), 이 중에는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와 같은 복제본도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경로는 본교 동문이자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지낸 이난영(李蘭映)을 통

해서이다. 1975년 중앙도서관은 이난영으로부터 고려묘지명이라 이름 붙여진 탁본 159점과, 비명(碑銘) 14점, 비편(碑片) 11점이 정리되어있는 스케치북을 입수하였다. 그 외에도 일사·가람·상백문고에 포함되어 있는 탁본이나 기타 단편적인 경로로 입수된 탁본들은 대부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대출 중이다. 이 중에는 광개토대왕비 탁본(등록번호 10100374157)도 포함되어 있는데, 비면에 석회를 바르기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탁본이다(서울대학교박물관 2019, 36-37).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박물관은 서울대학교 내에 도서관을 비롯하여 박물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과 연구실 등에 산재되어 있는 탁본을 모아 <불후의 기록>이라는 서울대학교 소장 탁본전을 개최하였다. 중앙도서관은 16종의 탁본을 출품하였는데, 이 중 『적연국사비명탁본(寂然國師碑銘拓本)』(합천 영암사(靈巖寺)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고려 전기의 승려 영준(英俊)의 탑비를 탁본한 첩)만 책자 형태의 탁본이고, 태종무열왕릉비, 문무왕릉비, 이차돈 순교비 탁본 등 15종은 낱장 형태의 탁본이다. 중앙도서관이 많은 수의 탁본을 전시에 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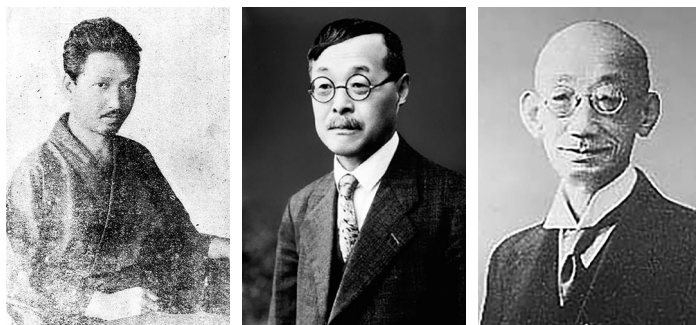
<그림 21> 태종무열왕릉비, 문무왕릉비, 이차돈순교비 탁본



## 10) 기타 도서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아트선재센터가 주관한 <금지된 책, 대나무 숲의 유령들>은 아시아의 금서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앞서 소개한 전시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전시이다. 박물관의 전시 유물은 전시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 박물관에서 책을 전시할 때 책의 외형이나 전시에 필요한 인용문이 노출된 특정 페이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접근이 불가능한 전시장 안에 비치해야 하는 전시 유물의 특성상, 독서의 대상이라는 책의 고유한 기능을 전시에서 부각시키기는 곤란하였다. 반면, 이번 전시는 마치 도서관에서 책을 열람하듯이 금서로 지정되었던 책의 내용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상하였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전시 형태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고문헌자료실에서 <금지된 책> 전시에 출품한 책은 일본에서 금서로 지정된 적이 있었던 책이나 작가의 작품들이다. ① 오스기 사카에(大杉榮)는 일본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시기 사회주의 사상가로 「노동운동의 철학(労働運動の哲学)」등 그의 주요 저술이 발표 당시 발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사카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헌병대에 연행되어 살해당하였다(Wikipedia). 출품한 책은 사카에 사후인 1926년 출간한 『오스기 사카에 전집(大杉榮全集)』의 제 1권이다. ② 역사학자인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는 1939년 쇼토쿠(聖徳) 태자가 실재하였는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가, 황실모독이라는 불경죄로 쓰다의 이전 저술들이 발매금지되고, 와세다 대학에서 쫓겨났으며,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된다(Wikipedia). 전시에는 이 당시 발매금지된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새로운 연구(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研究)』(1919년)가 출품되었다. ③ 헌법학자인 미노베 타츠키치(美濃部達吉)는 천황이 국가의 일부라는 ‘천황기관설(天皇機關說)’을 주장하여 당시에는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일본에서 파시즘이 대두되면서 1935년 일부 저서가 발매금지되고, 불경죄로 고발당하였으며, 귀족원 의원직을 사임하고, 나중에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였다(Wikipedia). 중앙도서관은 당시 발매금지되었던 『헌법촬요(憲法撮要)』를 출품하였는데, 천황기관설 사건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법학도들이 상용하던 교과서였다.



〈그림 22〉 오스기 사카에, 쓰다 소키치, 미노베 타츠키치(©Wikipedia.org)

#### 4. 나오며

박물관 등 전시기관이 중앙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여하는 이유는 전시하려는 자료를 중앙도서관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거나, 중앙도서관이 다른 기관보다 대여에 협조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이후 대학의 사회공헌과 지식나눔 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자료의 안전한 관리가 담보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대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왔다. 따라서 출품하였던 대부분의 자료들이 중앙도서관만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전시 대상 자료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소장 가치가 있는 자료라 할 수 있겠다.

앞서 중앙도서관이 최근 2년간 대여한 자료를 10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고,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들이 중앙도서관에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시한 목록들이 “서울대 도서관이 이런 자료도 소장하고 있었구나” 정도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는 있겠으나, “서울대 도서관을 대표할만한 자료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는 여전히 만족스런 답이 아닐 것이다.

범주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국내에서 열리는 대부분의 전시는 한국과 관련하지 않은 주제를 기획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과의 연관성은 고문헌자료실에서 수리복원이나 디지털화 대상을 결정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되며, 한국과 무관한 자료들은 아무래도 배제하게 된다. 그런데 교내에는 한국학의 보고(寶庫)인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은 규장각의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와 같은 국보급 문화재에 견줄만한 한국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은 한국적이지 않은 자료에서 중앙도서관을 상징할 만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까? 고문헌자료실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과 무관한 자료들은 대체로 국내에는 서울대학교만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좀 더 눈을 해외로 돌려 세계의 우수한 대학의 도서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에 비추면, 한국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게 그들에게 신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의 차별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한때 중앙도서관은 인피(人皮) 장정 도서를 도서관을 대표하는 자료로 내세웠으나, 안타깝게도 2014년 정밀 조사 결과 사람의 가죽이 아닌 소 가죽으로 판정받았다. 중앙도서관은 과거의 유산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장서개발 정책을 점검하여 도서관을 상징할만한 컬렉션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관련 서양 고서를 집중 수집하는 명지대학교 도서관의 사례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 [1] 강혜정. 2017.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 자료적 가치.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6(4): 29-52.
- [2] 국립무형유산원 편. 2018. 『한국과 중국의 무형유산: 비단』. 전주.
- [3] 국립여성사전시관 편. 2018. 『오늘 여권통문을 다시 펼치다』. 고양.
- [4] 국립한글박물관 편. 2019. 『한글의 큰 스승』. 서울.
- [5] 국립한글박물관 편. 2018. 『사전의 재발견』. 서울.
- [6] 국립현대미술관 편. 2019.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 1부 1900-1950』. 서울.
- [7] 국립현대미술관 편. 2017. 『신여성 도착하다』. 서울.
- [8] 김정민. 2017. 『건축왕, 경성을 만든다』. 고양: 이마.
-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편. 2019.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서울.
- [1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편. 2017. 『한국스포츠, 땀으로 쓴 역사』. 서울.
- [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편. 2019. 『대한제국 황제의 식탁』. 서울.
- [12] 불교중앙박물관 편. 2019.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 모악산 금산사』. 서울.
- [13] 서울대학교박물관 편. 2019. 『불후의 기록』. 서울.
- [14] 서울역사박물관 편. 2018. 『북촌 11가의 오래된 기억』. 서울.
- [15] 신규환. 2012. 청말 해부학 혁명과 해부학적 인식의 전환. 『의사학』. 21(1): 67-93.
- [16] 윤기엽. 2016. 일본불교의 대장경 간행과 번역 과정. 『불교평론』. 66. [online] [cited 2020. 1. 10.]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2>>
- [17]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편. 2019. 『구파발산대탈』. 서울.
- [18] 이근우. 2011. 『한국수산지』의 편찬과 그 목적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27: 103-128.
- [19] 인천광역시 검단선사박물관 편. 2018. 『그래서, 검단』. 인천.
- [20] 전경수. 2013. 조선민속학회와 『조선민속』의 식민지와 은향책-식민지혼종론의 가능성. 『민속학연구』. 33: 5-50.
- [21] 정근식. 2010.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형성과 운영. 『사회와 역사』. 87: 39-85.
- [22] 홍기순. 2011. M. П. Пуцилло(뿌젤로) 노-한사전에 관한 일고. 『노어노문학』. 23(3): 325-351.
- [23] Wikipedia
  - 大杉栄 [online] [cited 2020. 1. 10.] <<https://ja.wikipedia.org/wiki/%E5%A4%A7%E6%9D%89%E6%A0%84>>
  - 美濃部達吉 [online] [cited 2020. 1. 10.] <<https://ja.wikipedia.org/wiki/%E7%BE%8E%E6%BF%83%E9%83%A8%E9%81%94%E5%90%89>>
  - 津田左右吉 [online] [cited 2020. 1. 10.] <<https://ja.wikipedia.org/wiki/%E6%B4%A5%E7%94%B0%E5%B7%A6%E5%8F%B3%E5%90%89>>